

주보

2026. 7. 19.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엄태욱(목회)**

김윤수(교무) 차진호(청년·개척)

◆ 2026 표어 ◆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 2026 교회목표 ◆

1.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2.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3.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국제교단 연합·하느님의 사랑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2026. 7. 19.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r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 360장 (통402장) 2·3·4부: 15장 (통55장) 주일저녁: 327장 (통361장)	다같이
Hymn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r
	1부 삼상(1Sam.) 11:1~6 5부 대학청년 창(Gen.) 37:3~5	2·3·4부 시(Ps.) 34:18~20 주일저녁 행(Acts) 15:1~5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길르앗 야베스 전투		임태욱 목사
The Battle of Jabesh Gilead		Rev. Taewook Um
2·3·4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영훈 목사
God Who Delivers from Trouble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철없는 가족과 하나님의 섭리		차진호 목사
An Immature Family and God's Providence		Rev. Jinho Cha
주일저녁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최명선 목사
Be One in the Gospel		Rev. Myungsun Choi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2026. 7. 22.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30분 남형덕 목사 2부(스크린) 14시 3부(수요찬양)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2부: 304장(통404장) 다같이
 기도 1·2부: 탁상호 장로
 성경봉독 1·2부: 엡(Eph.) 3:16~19 3부: 마(Matt.) 20:1~2 사회자
 찬양 1·2부: 베데스다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1·2부: 이영훈 목사
 한 드라마의 은혜 3부: 신에스터 목사
 헌금기도 1·2부: 송영순 안수집사

2026. 7. 24.

금요일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안현주 목사 20시 30분
 기도 임은태 장로
 성경봉독 요(John) 15:7~8 사회자
 찬양 갯세마네 찬양대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박노아 목사

2026. 7. 25.

토요일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이성광 목사 오전 7시
 기도 지명호 장로
 성경봉독 창(Gen.) 4:13~15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예배의 실패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차진호 목사
 헌금기도 김정훈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예수, 그 분은	주일저녁	에벤에셀	윤 현 진	세상을 사는 지혜
주일2부	베들레헴	타이비드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요1부	베데스다	김 호 식	찬양의 삶
주일3부	예루살렘	김 광 현	내 가는 길 비록 험하여도	수요찬양	호 산 나	윤 규 섭	시편 23편
주일4부	나 사 렛	이 중 진	승리하며 나가세	금요일대망회	갯세마네	박 상 현	내 영혼의 구주
5부 대망회	임마누엘	이 수 범	One Day	토요일예배	가브리엘	이용 중	동행

오늘의 말씀

“아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이하줄임)
 (시 34:18~20)

사 회

1부 07:00 김 명 희 목사
 2부 09:00 김 민 철 목사
 3부 11:00 성 영 목 목사
 4부 13:00 김 경 대 목사
 5부 14:30 이 산 성 목사
 주일저녁 17:00 서 경 무 목사

대표기도

1부 한 철 수 장 로
 2부 이 용 기 장 로
 3부 이 종 만 장 로
 4부 이 순 열 장 로
 5부 김 태 영 장 로
 주일저녁 박 은 용 장 로

헌금기도

1부 배 석 규 안수집사
 2부 공 보 영 안수집사
 3부 한 태 성 안수집사
 4부 안 남 규 안수집사
 5부 조 윤 주 성 도
 주일저녁 김 택 한 안수집사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God Who Delivers from Trouble)

시(Ps.) 34:18~20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1. 고난의 교훈 (The Lessons of Suffering)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허락된 과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시 119:71).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고집과 교만, 불순종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사람보다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시 34:18).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사 57:15).

2.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God Who Delivers and Protects)

의인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시 34:19~20). 그러므로 환난의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시 145:18~19).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 4:8).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 심판하시는 하나님 (God Who Judges)

하나님은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시 34:21). 악인이 일시적으로 행통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뿐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시 37:1~2). 그러기에 악인을 보며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라도 원한과 복수심을 품기보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롬 12:19). 비록 세상의 불의가 끝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시 37:9~10).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예 배

1. 7월 셋째 주 새벽예배-일사: 7월 20일(월)~7월 24일(금) 새벽 5시 30분 / 장소: 대성전
설교: 이영훈 목사(21일 제직특화), 이성광 목사(20일), 엄태욱 목사(22일), 권일두 목사(23일, 24일)

모 집

1.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베데스다 찬양대(수요부예배) 찬양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격: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2.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호산나 찬양대(수요찬양예배) 찬양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격: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3. 교무국 장애인대교구 청각교구 봉사자 모집-문의 ☎ 02-6181-5807
자격: 본 교회 3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 받은 만 35세 이하 성도(수여 능력 무관)
4. 교회학교 창의체험 재능기부 교사 모집-문의 ☎ 02-6181-6404
자격: 본 교회 2년 이상 출석, 담당수업 가능한 전공자, 전·현직 교사 / 모집부문: 영어, 수학
5. 장년국 브열세바 찬양팀(주일4부예배) 팀원 모집-문의 ☎ 02-6181-6203
모집기간: 7월 31일(금)까지 / 모집부문: 상어(남), 베이스 기타
6. 한세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평)인생 모집-문의 ☎ 031-450-5188~9
접수기간: 7월 30일(목) 오후 3시까지 / 면접 및 실기고사: 8월 7일(금)

안 내

1. 오늘 결산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회학교 2026년 여름성경학교 및 하계수련회
여름성경학교-영아부, 초동1, 2, 3부: 7월 24일(금)~26일(주일) / 유아부, 유치부: 7월 25일(토)~26일(주일) / 장소: 본 교회
하계수련회-초동4, 5, 6부: 7월 31일(금)~8월 2일(주일) / 중동부: 8월 7일(금)~9일(주일) / 고동부: 7월 24일(금)~26일(주일) / 장소: 영산수련원
3.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찬양 콘서트(오드팜 새롭 콘서트)
일사: 7월 25일(토) 오후 3시 / 장소: 대성전 / 출연: 소향, 민호기, 아이자야픽스티원, 빅과이어, 하만택
4. 제90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하계수련회
일사: 7월 27일(월)~7월 28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5. 제50회 전국초교파 여성금식 기도대성회
일사: 7월 28일(화)~7월 31일(금) 3박 4일 / 장소: 오산리교회살기넘금식기도원 대성전 및 부속성전
6. 2026년 제23회 장로수련회
일사: 8월 28일(금)~8월 29일(토) 1박 2일 / 장소: 소노벨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 강사: 이영훈 목사 외
7. 8월부터 수요2부예배는 '3천 기도 용사와 함께 하는 오순절 기도학교'로 오후 1시에 세계선교센터 1층 102호에서 진행됩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7/26, 7/29, 7/31, 8/1) 대표기도

주일예배(7/26)						수요일예배(7/29)	김건수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만회(7/31)	정선석
이수국	조건열	김재수C	이현재	정인환	우광원	토요일예배(8/1)	윤권희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연주는 계속된다

1963년 무렵, 재즈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은 독일의 한 무대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뜨거웠고 밴드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일스가 솔로를 이어가던 순간 행콕은 그만 완전히 틀린 화음을 눌러 버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곡을 망치는 소리였습니다.

행콕은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두 손으로 귀를 감싼 채 건반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일스는 그 소리를 ‘실수’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몇 음을 더 얹었고, 바로 전의 틀린 화음은 거짓말처럼 제자리를 찾아 곡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훗날 행콕은 그날 음악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일스는 틀린 음을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그에 어울리는 다음 음을 찾는 일을 자신의 몫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음에 매몰돼 연주 전체를 포기해 버리기도 하지만, 실수가 그저 오점으로 남을지, 곡의 새로운 변주가 될지는 결국 그 뒤를 잇는 선율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저지른 실수 하나에 마음이 붙들려 있지는 않나요? 이미 눌러 버린 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음은 아직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자책으로 손을 멈추지 말고 그 뒤에 이어질 다음 한 음을 조용히 엿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대한 '가'의의 의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